추노(推奴), 택노(擇奴)

(마22:14~22)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15.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16.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17.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18.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19.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20.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21.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22.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추노(推奴), 택노(擇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추노(推奴), 택노(擇奴)'

추노라고 하면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끝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요.

드라마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역사적인 것이냐 아니냐를 또 따져 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적인 추노꾼이 있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 자료들은 뚜렷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추노의 행위가 있었고 또 추노의 행위를 통하여 돈을 버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모양입니다.

추노가 뭐지요 여러분?

노비가 있던 시절에 노비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그 도망간 노비들을 수색해서 연행해 오는 것, 이게 추노에요.
그러면 추노꾼은 뭡니까? 이렇게 연행해서 그 노비들을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주인으로부터 그 잡아온 노비들의 몸값을 받는 자들이 추노꾼입니다.
아마 조선시대 18세기에는 이 도망가는 노비들의 숫자가 급증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혀온 노예에게는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노예라 그래서 다 낙인을 찍은 게 아니었습니다.
연산군 시절에 특별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잡아온 노비들을 도노(逃奴), 도망간다 할 때 '도'자를 써 가지고 도노(逃奴), 도비(逃婢)라는 낙인을 이마나 얼굴이나 가슴에 찍었다 그래요.
이렇게 한번 낙인이 찍히게 되면, 이 낙인이라는 게 이 '낙(烙)' 자가 불로 지진다는 뜻입니다.
불로 지져서 낙인을 찍기 때문에 무슨 수를 써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성형술이 발달했다 해도 낙인을 지울 수 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택노라는 말, 이 말은 못 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이 택노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해봐요, 우리가 함께.
택노란 뭐냐? 노예의 낙인을 지우는 겁니다.
노예 중에서 택해서 낙인을 지워서 노예가 아닌 자로 만드는 것, 이걸 택노라고 우리가 이름하자는 거예요.

이러한 택노의 과정을 통해서만 참 신앙인이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추노는 도망간 노비를 잡아서 노비라고 하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 그러면, 택노는 그 찍힌 노예 낙인을 지워주는 겁니다.
자! 이거 이 택노의 과정, 노예 낙인을 지워주는 과정을 통해서만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님의 선언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잡아넣으려고 시험 삼아 한 질문이에요.
로마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그릅니까?
선민으로서의 신앙에는 사실 양심에 부딪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열심당원이나 바리세인이나 일반 백성들은, 로마 당국에 세금 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헤롯당원이나 헤롯왕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당국에 세를 내면서 유대사회 안에서 자기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Yes' 해도 이쪽으로 정치범으로 걸리고, 반대해도 일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실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올무에 빠뜨릴 수가 있지요, 'Yes'라고 하나 'No'라고 하나.

그런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뜻밖의,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대답을 해주심으로서 이 올무를 빠져 나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올무만 빠져 나오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가이사 황제 티베리우스, 이 가이사 황제의 두상이 새겨져 있던 데나리온을 갖고 아~주 깊은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깊은 영적인 진리가 어디에 연결되느냐 하면, 우리가 어제 읽었고 오늘 또 반복해서 읽은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라는 말씀에 대한 주석으로서 이 사건을 이용해서, 바리새인들이 한 질문을 이용해서 택함과 청함의 문제를 더 깊이깊이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라 이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는 택함 받은 자들,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으로 인을 치셨다는 얘깁니다, 택함을 입은 거지요.
앞에 바로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이 '청함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였는데, 그 내용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말씀으로, 그 당시에는 제자들조차도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깊이 있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자!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청함과 택함'의 문제를 얘기 하시는데…

여러분! 청함이 있어요, 초대를 합니다.

근데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아예 자기 일이 바빠서, 왕의 잔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통치하는 영역 안에서 아예 왕의 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따로 갖고 있는 자들, 이거 뭐 멸망이 정해져 있는 자들은 제쳐놓고, 청함을 받아들인 자들 중에서도 또 택함을 입어야 된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몰려 왔습니다, 근데 교회에 몰려온 자들 중에서 또 택함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택함의 상황이 뭐냐?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대한민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캐나다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삶의 현실에서 택함을 받은 것이라는 건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 교리적인 것 말고 맨날 교리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택함을 받았다' 이런 거 말고, 이런 삶에서의 택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고 택함 못 받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냐?

이것을 바로 데나리온 동전 하나, 가이사의 두상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와, 이 세금을 바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질문을 던지는 바리세인들을 보시면서, 사람을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으로 구분해 내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이사, 황제 세상을 통치하는 자, 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한 영적인 황제는 누구입니까?

세상의 영적인 황제는 사탄 아니에요, 사탄?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것이 바로 데나리온 동전의 모습을 통해서 그 진리가, 그 기준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데나리온을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가장 많이 통용되던 화폐인데, 한쪽 면에는 글귀가 씌어져 있습니다, '존엄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그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가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황제의 재임기간 동안에 그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두상이 새겨져 있고, 그 뒷면에는 티베리우스의 어머니가 왼손에는 왕의 호를 쥐고 있고, 오른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쥐고 있으면서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글귀가 뭐라고 씌어있나 하면 '지극히 높은 대제사장이다' 유대교회의 제사장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글귀가 거기 씌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앞뒤로 이방의 황제와 황제의 어머니가 그려져 있는 이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라.
거기서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인 사람을 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에, 마음에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존엄한 신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에 낙인이 찍힌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으로 낙인이 찍힌 자들이.
그 가이사의 것으로 낙인이 찍힌 자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사람 자체가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더 깊이 있게 택함의 영적인 실제를 보여 주시는데,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낙인이 찍힌 거예요, 가이사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이 실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교리가 아니고, 실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이 낙인이 찍혔다고 하는 것, 가이사의 것이 되었다, 다시 말해 택함을 입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제 얘기했어요.
인간은 욕구하는 에너지의 집합체입니다, 에너지덩어리에요.
살아있는 한 무엇인가를 바랍니다.
태어나자마자 '응애~' 울면서 밥을 바라고, 젖을 바랍니다, 욕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욕구자체는 죄가 아니기에,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욕구하는 에너지의 덩어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욕구할 때에 기쁨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욕구라는 건 빈 마음이고 흡입하는 마음인데, 그걸 채울 때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 말했지요? '기쁨의 밀조업자들'

오직 하나님만이 욕구의 대상이 되도록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타락 이후에 하나님으로 인한 참 기쁨이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욕구하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쁨이 없으면 안 되니까, 채우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 기쁨의 재료를 위하여 이 세상 땅 위에 있는 것들을 욕구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흔히 접할 수 있는 돈, '돈을 벌고 싶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어저께 예복이라 그랬는데, 그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라는 나의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막을 살펴보면 예복을 입은 자와 안 입은 자 내막을 살펴보면, 택함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의 문제라 이것이고, 내가 돈을 좋아해서 마음이 돈을 향해 가게 된다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다는 겁니다.

낙인이 찍힌 거라는 거예요.

왜 돈을 좋아하느냐? 돈 자체가 좋은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이 세상의 가이사가, 세상을 지배하는 가이사가, 우리 마음에 돈이라고 하는 불도장으로 우리 마음에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우리가 '돈, 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데나리온의 표면에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에 의해서 낙인이 찍혀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는 노예로 전락해 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식, 자식' 합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이사가, 자식이라고 하는 불도장을 마음에 찍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노예로 노예 낙인을 찍었다는 얘깁니다, 이게 추노의 과정이지요.

사탄이 사람을 잡아다가 원래 노예가 도망간 건 아닙니다마는, 아담을 잡아다가 아담의 마음에 낙인을 찍어줍니다, 그게 선악과를 판단하는 낙인인데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겨서 욕구하는 에너지로서의 인격이 그거를 빨아들이게 하는데, 그게 바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좋다고 여기는 것들, 바랄만한 것들, 보암직하고 바람직한 것을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적극적으로 예복을 입는 과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한 거다', 그런데 아니에요.

실상을 보면 택함을 입지 못하는 것이고 가이사가 도장을 찍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자기 것으로 도장을 찍는 방법은, 마음에다가 돈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든지 아니면 뭐 애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든지, 성공, 승진, 국회의원, 대통령, 권력 이런 낙인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노예가 돼 버리는 거예요.

노예가 뭡니까?
남의 소유가 되어서 부림을 당하는 것이에요.
시간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모~든 것이 다, 돈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애인을 사귀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이게 다~ 낙인찍힌 거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것들이 생긴다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욕구하는 대상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 사로잡힌 것이고 노예로 낙인이 찍혀버린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택노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한번 낙인이 찍히면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이 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된 상태는, 욕구하는 에너지덩어리로서의 인격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불가능해요, 사실은.
인간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을 내가 그 하나님만으로 참으로 기쁠 수 있다고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선택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이라는 인이 쳐졌기 때문에, 돈이라는 인이 쳐졌을 때 돈 돈하는 것처럼, 자식이라는 인이 쳐졌을 때 노예라는 낙인이 찍혔을 때 자식 자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인이 쳐져야, 인침을 받아야 이 택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을 욕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낙인은 지워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택노의 과정이 수행될 수 있습니까?
낙인찍힌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버리고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면서,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돈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애인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의 과제도 있고 여러~가지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은 가운데, 그 좋은 것들 다

뿌리치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겠다고 하는 결심이 서고, 하나님만이 내 욕구의 참 대상이라고 하는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게 택함의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길도 없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왜 내 꿈과 소망의 대상이다, 유일한 대상이다, 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대상이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할 길도 없는 거예요, 납득할만하게.
이미 다른 것에 노예가 되어있는, 가이사의 것이 되어있는 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육신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 마음으로서는 끊임없이 육적 요소들이 침투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룩거립니다,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사람들이 때로는 돈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자빠집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갖고 싶어 하고 하는 쪽으로 자꾸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붙잡힌 거예요.
노예가 돈에 붙잡혔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붙잡혔습니다.
좋은 것이 많은 세상에서 다~ 제쳐놓고,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최우선으로 갖는 자들,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지금 오늘의 번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만이 참 욕구의 대상이다, 다섯 단계 다섯 카테고리의 욕구들, 이건 다~ 참 욕구가 아닌데 마귀가 우리들을 속인 거다'
이런 말을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 받아들여요.
'밥을 먹고 싶다'라는 이게 욕구가 안 된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욕구가 아니다, 우리 욕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밀쳐버리십니다.
이 말을 누가 받아서 생활 속에서 이렇게 해 보려고 낑낑이라도 하겠느냐 이겁니다.
오직 택함을 받은 자들 택노의 과정, 노예를 택해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게 하시고, 그리고 새롭게 그 마음에 하늘, 천국, 하나님이라는 이 땅에 없는 대상으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절름거리면서도 그 쪽을 향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추노 당한 자들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낙인찍힌 자들로서 노예생활을 중지하시고 새롭게 하늘로 인침을 받아서 마음에 가이사의 것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전환되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노 된 자들처럼 이 세상의 것들로 마음이 낙인찍혀 살고 있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인정함을 통하여, 새롭게 주님과 더불어 부활해서 승천하신 주님, 주님이 계신 그 하늘에 의하여 다시 한 번 인침을 받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옵나이다.
아멘!